

서울아트가이드 Seoul Art Guide

Vol. 164
2015 08



- ☐ 어떻게 하면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어요
- ☐ 고려백자와 미술품수집
- ☐ 유럽 미술시장 속 미술관과 미술관 속...
- ☐ 에치고츠마리 대지예술제 트리엔날레...
- ☐ CONTENTS p.22
- ☐ Exhibitions of Editor's Choice p.112

www.daljin.com

서울경제
Since 1960
서울경제 창간 55주년 기념

전세계 45개
소장처에서 모은
국내 최초의 회고전

전시문의 1588-2618
www.modigliani.co.kr

모딜리아니
MODIGLIANI
몽파르나스의 전설
Legend of Montparnasse

6.26-10.4 2015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주최 서울경제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Institut Français 한국미디어네트워크 특별후원 JCDecaux 미디어후원 NAVER
협찬 KOREAN AIR THE WESTIN CHOSUN Prudential KDB산업은행 예매 인터파크 티켓 1544-1555 NAVER 모딜리아니전

Reclining Nude with case Modigliani 1927 © Utsunomiya City Museum of Modern Art, Japan

아니쉬 카푸어

6.9 - 11.1 베르사유 정원 www.chateauversailles.fr

영국을 대표하는 인도 출신의 거장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가 지난 2011년 파리의 그랑팔레 전시회에 이어 불안정하며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품으로 베르사유를 장식한다. 작가에게 베르사유 정원은 너무나 완벽했고,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쟁점은 스케일과 현장의 규모였다. 시간의 부족을 이유로 그는 본래 베르사유로부터 2014년에 전시초대를 받았으나 거절했었다. 완벽하고 개성 있는 시각의 거장 르노트르에 의해 디자인된 이 장소를 작가로서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정원에 일련의 멋진 방식으로 작품을 가져다 놓는 것이 아닌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있도록 숙고해야만 했고, 작가는 현장을 위한 작품을 만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작물을 현장의 요건에 적용시킬 줄 알았다. 베르사유 정원의 거대한 운하까지 이어지는 긴 풀밭 위, 10m 높이의 거대한 작품인 <더러운 구석(Dirty Corner)>은 논쟁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어떤 관객들이 이것을 성적 표현으로 본다면 작가에게 있어 작품이란 유일한 해석을 갖지 않는 것이므로 다행한 일이다. 여성의 성기? 남성의 성기? 동굴 입구? 르노트르의 완벽한 원근을 파괴하는 이 거대한 작품을 해석하는 것은 각자의 자유이다. 상징적 의미를 지닌 주드폼 공간에 펼쳐진 작품 <Shooting into the Corner>를 비롯해 시적인 전경사진으로 베르사유 궁전 '셀프 카메라 찍기'의 순간을 제안하는 C-커브의 하늘거울 작품 등 총 6개의 작품은 각 장소에 적절히 배치되어 르노트르의 원근과 대화를 하며 이 권위있는 장소를 통해 역사적 에피소드를 만들어 낸다.



더러운 구석, 2015, 베르사유 궁전 정원상, 캔버스에 유채, 21 x 15.5cm

제르멘 크롤

6.2 - 9.27 파리, 주드폼 www.jeudepaume.org



자화상, 1925년 경, 23.6 x 17.5 cm

아방가르드 사진가를 대표하는 제르멘 크롤(Germaine KRULL, 1897-1985)은 "진짜 사진가는 매일을 증거하는 보도자"라고 선언한다. 누드부터 건축까지, 자동차에서부터 여성 노동자의 상황까지... 우아하면서 숨 막히는 130여 점의 사진과 잡지, 책을 통해 작가의 풍성함과 다양함을 발견할 수 있다.

파트릭 뉴

6.24 - 9.13 파리, 팔레드도쿄 www.palaisdetokyo.com



오늘날까지 많은 작품을 선보인 적이 없었던 작가인 파트릭 뉴(Patrick NEU)의 개인전으로, 작가는 지난 30년간 세상에서 한발 물러나 자신의 세계를 발전시켜 왔다. 작가는 벌의 날개, 그을린 유리, 크리스탈, 먹물로 된 조각, 나비 날개, 계란 껍질 등의 친숙하지 않은 물질들을 재료로 활용하여, 전통적 기법들을 탈피한 작업으로 새로운 실험들을 시도한다. "나는 내 작업을 할 뿐이다. 나는 예술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이 어렵고, 예술가의 단어역시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그는 말한다.

루소를 인용한 서프라이즈, 2007, 크리스탈 잔에 그을음으로 드로잉, 20 x 8 x 8cm

루벤스에서 반다이크까지

7.10 - 10.4 파리, 피나코텍 www.pinacothèque.com



앙토안 반 다이크, 장 샤를 드 코드 인물화, 연대 미상, 캔버스에 유채, 21 x 15.5cm

테크놀로지 산업분야에서 수십 년간 일해온 사업가인 게르스텐마이어(Hans Rudolf GERSTENMAIER)는 40여 년 전부터 스테인에서 작품을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의 컬렉션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개인적 취향과 미학의 탐색이다. 그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대부분의 소장품들을 경매장과 갤러리, 골동품상에서 직접 수집했다는 것이다. 본 전시는 게르스텐마이어 개인 컬렉션 중 플랑드르 미술의 가장 아름다운 작품들을 소개한다.

콩고의 미 (1926-2015)

7.11 - 11.15 파리, 까르띠에현대미술재단 www.fondation.cartier.com



JP Mika, 행복과 즐거움, 2014, 캔버스에 유채, 168,5 x 119cm

1920년대 근대회화가 탄생한지 1세기를 맞이하는 활력있는 문화의 무대인 콩고 민주 공화국을 이번 전시를 통해 주목한다. 페인팅이 이번 전시의 중심에 있지만 이와 함께 조각, 사진, 음악, 만화 역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까르띠에현대미술재단에서 콩고의 다양하고 생명력 넘치는 예술현장을 발견할 수 있다